

대학교수들의 학술정보원 이용행태분석: K대학의 사회과학교수집단을 중심으로*

The Analysis on the Academic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College Professors: A Social Scientist Group in the K-University

박준식(Joon-Shik Park)**, 박일종(Il-Jong Park)***, 신상현(Sang-Heun Shin)***

목 차

1 서론	4 설문조사의 결과
2 국내외 현황	5 결론
3 연구방법	

초 록

본 논문은 사회과학자들의 학술정보원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학술정보원의 이용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한 대도시의 대학에 재직중인 사회과학관련 전공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연구환경에 대한 만족도 특성 및 연구자료의 이용행태 등을 설문조사하여 응답자의 주 연구분야, 직위, 대학체직기간, 연구기간에 따른 자료수집기간과 방법,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검색방법의 선호도, 자료수집 소요기간, 최신자료의 이용률 등을 분석하였다. 사회과학도들이 학술정보원을 이용할 때 이를 위한 미래 연구과제 및 제언도 서술하였다.

ABSTRACT

Not only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academic sources by social scientists was analyzed but its effective using method was also presented in this paper. For the purpose, the questionnaires were prepared and administered to social scientists who are the professors of a large university in Taegu, Korea, and the survey for their academic environment and its satisfaction, characteristic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academic sources, etc. was conducted. Also, their research interests and perio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its difficulties, retrieval methods, and using frequencies of current issues etc. were analyzed in this paper.

The major findings of the quantitative part on the development of academic sources for social science study and their uses for education and study in this study are: (1) Social scientists preferred acquiring material through internet, CD-ROM, and PC, etc. to the traditional methods; (2) They spend approximately 41 days for collecting material they want, and each of them has pretty various period to collect material and acquiring methods. (standard deviation : about 35 days); (3) The citation frequencies of foreign material was higher than domestic one; (4) They, social scientists, have a pretty hard time to access and use the theses, journal, magazine, microfiches and microfilm, CD-ROM material etc. technically; (5) The group that has more satisfaction to thesis and more frequent participant of seminar seek for more recent issues of a journal through the research model of tumelag. (6) The group that has higher positioned and longer tenure of office can access to shorter time of period than the one that has the lower and the shorter group. Also, future research topic and recommendations for a social scientist are proposed and suggested when using a social science material.

키워드 : 학술정보원, 색인·초록서비스, 이용자연구, 연구환경, 정보탐색행태

* 이 논문은 1999년도 계명 대학교 사회과학진흥 특별연구과제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임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 계명대학교 통상학과 조교수

■ 논문 접수일 : 2000년 4월 7일

1 서론

1963년 Price는 그의 저서에서 1800년에 전 세계의 과학저널수가 100여종에 불과하였지만, 그것이 1850년에는 약 1,000종으로, 1900년에는 약 10,000종으로, 1950년에는 거의 100,000종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으며, 새로운 21C에는 1,000,000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는 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현 상황에서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무수한 전자저널을 포함하면 이미 양적으로 이를 초과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물론 1980년대까지는 순수한 종이매체 중심의 과학잡지만으로 간행되었으며 90년대 들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전자저널이 개발된 탓으로도 볼 수 있지만, 18C 이후 인간의 과학적 지식에 대한 욕구와 이를 배포하는 수단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회과학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범람하는 사회과학저널과 논문 속에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최신 학문을 접하고 연구논문을 만들어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자신이 연구하는 혹은 연구코자하는 내용이 기존의 연구논문에서 다루어진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중복연구를 피하면서 사회과학자들이 효율적인 사회과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술정보원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연구에 활용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Britannica 백과사전에 의하면, 사회과학은 '인간의 행위를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학문분야 및 분과를 총칭'하는 용어로

서 인간사회에서 발생하게 되는 제 사회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사회과학은 수학, 물리학, 화학과 같은 자연과학에서 볼 수 있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식을 얻어낼 수 없는 분야가 많고, 현실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어 그 문제해결을 피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둘 수밖에 없으며, 여타의 학문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다학문적인(interdisciplinary) 성격을 지니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경우에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그 법이 해당 국가의 무역이나 기업경영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되는 지를, 어떤 연구자 혹은 해당 프로젝트의 구성원 중에 누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공해와 도시 환경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도 고찰하여야 하는 등의 예에서 보여 지듯이, 자연과학, 공학 등의 학문도 다학문적인 추세를 많이 보여주는 현실이지만 사회과학내의 학문들간에 상호 작용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다학문성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사회과학은 당연히 인접 학문분야에 속하는 같은 사회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정보요구와 그 이용행태 면에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정할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이 이러한 특성에 맞게 학술 및 교육관련 정보원을 선택, 수집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문헌정보학은 수집된 자료를 가공하여 제시함으로써 사회과학내 제반학문의 연구와 교육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학술 및 교육관련 정보원은 그 성격에 따라

서지, 색인, 초록 등과 같은 2차정보원과 백과사전, 사전, 인물정보, 지리정보, 통계정보 등과 같이 원하는 정보를 요약된 형태로 제공하는 두 가지로 나눈다. 특히 2차정보원(주로 색인·초록서비스)은 주제분야의 단행본, 잡지, 기사, 신문기사, 보고서, 회의자료, 정부간행물, 학위논문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각 주제별로(주제명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는데는 주로 색인·초록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의 리스트는 그 원문을 입수함으로써 정보탐색과 수집의 최종 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지된 바로는 다수의 사회과학자들은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의 색인·초록서비스의 존재를 모르고 있으며, 일부 알고 있다해도 그 이용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정보탐색과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색인·초록서비스와 같은 학술 및 교육관련 정보원은 그 존재하는 형식이나 입수경로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존재 형식이나 입수경로 면에서는 전통적인 인쇄본, 온라인데이터베이스, CD-ROM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웹버전 등이 있다. 이들 각 유형은 특징이 있지만 최근의 추세는 점차 전자적인 정보원 특히, 웹을 통한 접근과 활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자들은 인쇄본 색인·초록서비스에는 부분적인 접근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온라인데이터베이스나 CD-ROM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인터넷 웹버전 등의 전자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소스(source)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과학자들의 연구환경과 각 자료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논문자료의 형태 및 입수경로, 기간 등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아보고, 이의 개선방안 및 각 분야별로 유용한 참고정보원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연구배경에 관한 또 다른 한 관점은 사회과학자들이 비록 색인·초록서비스와 같은 참고정보원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원문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문입수는 전통적으로 도서관을 매개로 하여 복사물을 우편으로 받아보는 방법이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혁신적인 정보통신의 기술을 응용하여 온라인데이터베이스, CD-ROM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새로운 기법들에 대해 거의 문의한이나 다름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과학자들에게 관심 분야의 문헌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는데 있어서 체계화된 접근방법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과학자들의 정보이용행태(Information Seeking Behavior)에 대해 조사·연구함과 동시에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원을 소개하고 정보탐색 뿐만 아니라 원문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는 지침서개발을 위한 연구로서 시도되었다. 동시에, 비단 종래의 인쇄자료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발된 다양한 형태의 전자자료를 활용하는 데에도 본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2 국내외 현황

Bob Noyce와 함께 인텔회사의 공동설립자

인 Gordon Moore는 1965년 컴퓨터의 반도체 칩 성능이 매 18개월마다 2배씩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18개월에 2배씩이라면, 9년 후엔 64배, 15년 후엔 약 1,000배, 30년 후엔 1,000,000배, 60년 후엔 약 1,000,000,000.000 (10^{12}) 배의 속도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법칙이 아니라 하나의 예측에 불과하지만, 본 관찰을 통하여 마이크로칩이 내장할 수 있는 저장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하드웨어의 발전속도가 항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일부에서는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너무도 빠른 속도일 것이기 때문에 이 예측은 매우 한시적일 것으로 보이며 향후 2, 3년 내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명 '무어의 법칙'으로 불리는 이 예측은 앞으로도 15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미국 반도체업협회(SIA)¹⁾가 전망했다. 컴퓨터의 발전 속도는 이와 같이 엄청나게 빠르며, 과거엔 지극히 한정된 분야에서만 이용되던 컴퓨터는 이제 어느 분야에서나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자료의 이용은 현재의 연구 환경에서 당연히 필수적이지만, 상당수의 학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를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국내 많은 대학들은 학부제의 실시를 비롯하여, 변화되는 교육환경 하에서 현재 많은 개혁의 바람을 타고 있다. 특히 인문과학은 취업시장의 제한성으로 인해 일대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 사회과학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교육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최근에 간행된 자료에서 최신의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입수하여 자신의 연구역량을 십분 발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자료의 입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여러 형태의 전자자료를 활용한 학술정보원의 이용에는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이용의 빈도가 무척 낮다고 볼 수 있다(김용성 1988, 김병주 1995, 최은주 1995, 박준식 1998).

이러한 제한적 학술정보원의 이용은 연구의 비효율화 및 부실, 중복연구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한 바 본 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배경을 살펴보았다.

사회과학자들의 정보이용행태와 학술정보원을 연결시켜 학문연구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구미의 선진국에선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주제 분야별로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내용의 개요를 제시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문헌과, 학문 분야별로 관련 문헌을 집대성하여 정보탐색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 주고 중복연구를 예방하도록 하는 주제별 서지활동으로 대별된다.

전자 즉, 사회과학 전반의 참고정보원을 소개하는 문헌으로는 Nancy L. Herron이 편찬한 *The Social Sciences, A Cross-Disciplinary Guide to Selected Sources* (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 Inc., 1996)와 Tze-chung Li가 편찬한 *Social Science Reference Sources, A Practical*

1)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 미국 반도체공업협회, 1977년 3월 미 실리콘밸리의 인텔 등 반도체 메이커 5개 사가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일본계 반도체의 대미수출이 본격화된 시기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SIA의 활동에는 당초부터 일본에 대항한다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Guide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90)이 대표적이다. 이 두 저서는 사회과학의 학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과학 전반의 참고정보원을 폭 넓게 이해함으로써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자료는 단지 문헌 탐색을 위한 서지정보만을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각 분야별 일반참고정보원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사회과학의 각 분야별로 학술정보원을 구축하고 이를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학술정보원의 구축을 위한 노력에 비해 오히려 뒤떨어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공분야의 문헌에 대해서는 분야별 사회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 가정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전문분야별 학술정보원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한 문헌정보학적 지식이 없어 실현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미 제국에선 사회과학의 영역별 학술정보원의 구축을 위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다음에 사회과학의 각 분야별 학술정보원의 구축과 관련된 참고정보원을 열거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학문의 특성과 경향, 문헌의 구조 등을 밝히고, 해당 분야의 참고정보원을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있다.

정치학: York, Henry E. *Political Science: A Guide to Reference and Information Sources*. En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1990.
 행정·경찰행정학: Simpson, Antony E. *Information-Finding and the Research Process: A Guide to Sources and Methods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Policy Sciences*.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93
 경제·경영·무역학· *Bibliographic Guide to Business and Economics*. New York, NY: G. K. Hall/Macmillan, 1974- , Annual.
 Daniells, Lorna M. *Business Information Sources*. 3rd ed.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법률학: Jacobstein, J. Myron, Roy M. Mersky, and Donald J. Dunn. *Fundamentals of Legal Research*. 6th ed. Westbury, NY: Foundation Press, 1994
 사회학: Aby, Stephen H. *Sociology: A Guide to Reference and Information Sources*. En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1987.
 심리학: Sternberg, Robert J. *The Psychologist's Companion: A Guide to Scientific Writing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3rd ed.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커뮤니케이션: Gitter, A. George, and Robert Grunin. *Communication: A Guide to Information Sources*. (Psychology Information Guide series, vol. 3) Detroit. Gale, 1980.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Beverly Hills, CA: Sage, 1976-1985.
 문헌정보학: Prytherch, Raymond John *Sources of Information in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2nd ed. Aldershot, England: Brookfield, Vt. Gower, 1987.
 Purcess, Gary R. and Gail A. Schlachter. *Reference Sourc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 Guide to the Literature*. Santa Barbara, CA: ABC-CLIO, 1984.

한편 우리 나라의 연구동향은 서구 세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 먼저 사회과학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도 단 2건에 불과하다. 김용성(1988)은 "사회과학자들의 정보원에 관한 인용문헌분석"이란 논문에서 우리나라 사회과학자들의 논문에 이용된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사회과학자들의 문헌인용습관을 구명하고 있다. 한편 김병주(1995)는 "우리

나라 사회과학자의 정보이용 경향.”이란 논문에서 우리 나라 사회과학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와 이용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학문의 특성과 연구방법, 정보유통과 이용에 대해 이론적 개관을 하고, 주제 분야별로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내용의 개요를 제시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문헌은 최은주(1995)의 『사회과학정보론』이 유일하다. 이 저서는 근본적으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부학생의 텍스트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회과학 분야의 교육에 필요한 정보나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 서지자료를 이해하는데는 도움이 되나 사회과학자를 위한 학술정보원으로서 부족한 면이 많다. 특히 상당수 참고정보원에 대해 다만 서지적 사항을 열거만 하고 내용을 분석하지 않아 연구지원 자료로서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과학 전반과 학문 분야별 참고정보원을 구축하고 이를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사회과학자들의 정보이용 행태를 재조명하여 그들의 연구환경과 이용행태상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효율적 연구활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학술정보원을 개발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들을 교육연구에 심분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시도를 병행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법과 인용조사법을 병용

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과학자들의 연구환경과 각 자료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이 연구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논문자료의 형태 및 입수 경로, 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직위별, 재직기간별 차이와 자료수집소요시간 및 이용자료의 신선도, 등의 변인에 의해 사회과학자들이 국내외자료를 이용하는 빈도, 학술세미나 참여도, 각 자료별 이용빈도 등을 계량적으로 비교 분석한 후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후 이와 연계시켜 각 분야별로 유용한 참고정보원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3.1 연구내용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과학자들은 관심 분야의 문헌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는데 있어서 체계화된 접근방법을 반드시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사회과학자들이 추구하는 정보요구와 다양한 정보이용행태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과학자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관한 하나의 모델을 세우고자 시도하였다.

두 번째는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 및 교육관련 정보원을 색인 초록서비스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정보탐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개별적인 참고정보원을 인쇄본, 온라인데이터베이스, CD-ROM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웹사이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필요한 자료의 원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입수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참고정보원 개발추이를 감안하여 이 과정도 역시 전통적인 인쇄자료의 이용방법과 전자적 자료의 이용방법을 동시에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들 연구내용을 유목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과학자들의 정보이용행태의 다양성
 - (2) 사회과학자들이 연구와 교육을 위해 참고하는 주요 정보원
 - (3) 사회과학자들의 주요정보원 입수경로 및 그 타당성과 유용성
 - (4) 사회과학자들의 인용습관
 - (5) 사회과학자들의 연구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분석
 - (6)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각 분야별 주요 색인·초록서비스 조사
 - (7) 주요 색인·초록서비스를 인쇄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CD-ROM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인터넷의 웹사이트로 탐색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시
 - (8) 색인·초록서비스의 탐색을 통해 얻어진 자료의 원문을 입수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 이상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 (1) 사회과학자들의 정보이용행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 (2) 사회과학 각 영역의 주요 색인·초록서비스의 조사, 평가와 내용 해체
- (3) 각 영역별 주요 색인·초록서비스를 온라인데이터베이스, CD-ROM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인터넷의 웹사이트로 탐색을 실행하여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과 이용방법을 조사

본 연구는 크게 2가지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전술한 연구방법 (1)과 (3)을 주로 사용하여 연구내용 (1), (2), (3)과, (5)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계량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결과를 추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준비된 설문내용을 상기의 대상자들에게 배포하여 수집하였다. 자료의 수집을 위해 본 연구의 연구자들과 연구조교들이 설문기법과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기타의 부분은 문헌탐색과 분석을 통한 질적인 연구(Qualitative Research)에 기반을 두며, 이를 통하여 사회과학자들의 인용습관 및 분야별 주요 색인초록서비스 및 원문 입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3.2 설문조사 및 분석단계

현재 연구대상대학의 사회과학관련 전공은 6개의 학부에 걸쳐 15개의 전공으로 나누어져 편제되어있다. 각 전공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8명에 이르기까지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1999년 9월 현재 총 104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바 (<표 1> 참조),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59명의 교원에게서 성의 있는 답변을 얻어내었다(원래의 응답률은 58.7%였으며, 데이터처리가 불가능하였던 응답결과는 단지 2개로 1.9%에 불과하여 실제 응답률은 56.7%였다). 설문조사는 10월 4일에서 11월 12일까지 6주간에 걸쳐 4명의 설문조사원으로 하여금 개개 연구실을 찾아가 설문응답을 요구하는 방문조사(Personal In-office Interview)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설문내용은 그 설문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원들의 차례에 걸친 회합을 통해서 결정되었으며, 수

(표 1) 연구대상대학의 학제하에서 분류된 모집단의 숫자 및 표본의 빈도와 응답률

학부	전공	전체모집단 빈도(%)	표본의 빈도(%)	응답률
경영학부	경영학	18 (17.3%)	12 (20.3%)	66.7%
	회계학	9 (8.7%)	5 (8.5%)	55.6%
	관광경영학	6 (5.8%)	3 (5.1%)	50.0%
	경영정보학	7 (6.7%)	2 (3.4%)	28.6%
	세무학	1 (1.0%)	1 (1.7%)	100.0%
사회과학부	사회학	6 (5.8%)	4 (6.8%)	66.7%
	신문방송학	5 (4.8%)	3 (5.1%)	60.0%
	심리학	5 (4.8%)	3 (5.1%)	60.0%
	문헌정보학	5 (4.8%)	3 (5.1%)	60.0%
정경학부	경제학	9 (8.7%)	5 (8.5%)	55.6%
	행정학	7 (6.7%)	2 (3.4%)	28.6%
	정치외교학	1 (1.0%)	1 (1.7%)	100.0%
경찰학부	경찰행정학	2 (1.9%)	1 (1.7%)	50.0%
법학부	법학	10 (9.6%)	5 (8.5%)	50.0%
통상학부	통상학	13 (12.5%)	8 (13.6%)	61.5%
전공기재 누락			1 (1.7%)	
합 계		104 (100%)	59 (100%)	56.7%

차례의 수정 후 문헌정보학 전공의 교수들과 재학생들에게 시험적인 연구(Pilot Study)를 시도하였다. 최종적으로 9월 28일에 완성된 설문문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반부의 설문 1~3은 현재의 연구환경과 관련서적, 학위논문, 보고서, 학술지, 전문잡지, 마이크로 필름자료, CD-ROM 자료, 인터넷자료, PC통신을 통한 자료 등 각 자료의 지원상황에 대한 만족도 및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설문 4~8은 응답

자가 자료수집을 위해 이용하는 장소와 문헌별 이용자료의 출처, 자료탐색시 이용도구, 및 이용자료의 평균시간 경과정도(Time-lag) 등을 질문하였다. 사회과학자료의 원문입수경로 및 관련된 이용자료의 항목들은 최은주(1995), 박준식(1998)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마지막부분의 인적사항에 관한 설문 1~5에서는 주 연구분야 및 현재의 소속, 직위, 대학에서의 재직연한, 국내의 연구기간 등의 내용을 응답하게 하였다(부록 I 참조).

연구지원시설 및 자료지원상황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과 자료수집을 위해 이용하는 장소 및 국가별 빈도에 따른 자료의 출처를 묻는 문항들은 'Negative-Positive'의 방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자가 해당문항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거나 이용빈도수가 아주 적으면 '1' 점으로, 긍정적이거나 빈도수가 많으면 '5' 점에 Mark(표기)하게 하는 Likert 5 점 척도 방식으로 응답시켰다(Bad through Good Mode).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SPSS) ver. 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4 설문조사의 결과

4.1 인적사항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하여 참고문헌 자료수집 방법에 관한 본 대학의 사회과학 분야 교수 104명중 설문에 응해 준 59명을 상대로 1999년 10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6

주간에 걸쳐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3.2 설문조사 및 분석단계' 참조 요). 응답자 59명에 대한 인구통계적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4.1.1 응답자의 주 연구분야

설문지의 인적사항 문의 부분 1번과 5번 항목에서는 설문응답자들의 전공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주 연구분야나 전공을 학술진흥재단 기준으로 대분류하면 <표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 바, <표 2>는 설문대상이 된 104명의 모집단 중에서 설문조사에 응해준 집단(59명)을 11개의 전공별로 분류하여 그 빈도를 백분율로 만든 것이다(59개의 추출된 표본 중 1개의 응답은 전공을 표시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원이 이를 기억하지 못한 관계로 '전공기재 누락'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대상대학에서 사회과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15개의 전공을 연구하는 교수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3.2 설문조사 및 분석단계' 부분에서 이미 기록된 <표 1>과 같이 분류한 바 있다(표본 중 1명의 응답은 전공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전

<표 2> 학술진흥재단의 분류에 의한 표본의 빈도

전공	빈도	%	전공	빈도	%
경제	9	15.3	행정	3	5.1
법학	5	8.5	사회	4	6.8
심리	3	5.1	무역	1	1.7
경영	23	39.0	회계	3	5.1
문헌정보	3	5.1	정치	1	1.7
신문방송	3	5.1	합계	58	98.3

* 전공기재 누락 1인 (1.7%) - 전체 100%

공기재 누락'으로 분류하여 표시하였다). <표 1>은 설문대상이 된 104명의 모집단과 59명의 표본을 학부제하의 연구대상대학 내에서 사회과학부 뿐만 아니라 정경학부, 경찰학부, 경영학부, 통상학부, 법학부의 6개 학부내 15개 전공으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4.1.2 응답자의 직위

설문지의 인적사항 문의 부분 2번 항목에서 질문한 내용을 분석하면, 총 응답자 59명은 전임강사 4명(6.3%), 조교수 16명(25.4%), 부교수 18명(28.6%), 정교수 20명(31.7%), 그리고 객원, 겸임교수 1명(1.6%)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4.1.3 응답자의 대학(타대학 포함) 재직기간

설문지의 인적사항 문의 부분 3번 항목에서 질문한 내용을 분석하면, 총응답자의 대학 재직기간 평균은 약 12년 1개월(121.08개월)이고, 표준편차는 7년 6개월(86.958개월)이었다.

4.1.4 응답자의 국내외 연구기간

설문지의 인적사항 문의 부분 4번 항목에서 질문한 내용을 분석하면, 석사과정이상의 국내의 연구기간은 국내 7년 6개월(표준편차 7년 2개월)과 국외 4년 7개월(표준편차 3년 2개월)로 나타나 응답자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4.2 자료수집 및 검색관련 평가

설문조사의 전반부에서 문의된 연구환경 평가, 자료수집 기간과 방법에 관한 평가,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검색방법의 선호도에 내용을 분석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1 연구환경 평가

교내외(校內外) 연구지원시설에 대한 응답자의 전반적인 평가는 Likert 5점 Scale에서 "불만족"을 2점, "그저 그렇다"를 3점으로 주었을

<표 3> 세부자료지원상황에 대한 평가의 평균치와 표준편차값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인터넷 자료	3.5085 (.8978)
CD-ROM 자료	3.1864 (.8997)
천리안, 하이텔 자료	2.9492 (.9724)
관련서적	2.8983 (.9594)
학위논문	2.8644 (.8191)
전문잡지	2.6780 (1.0076)
학술지	2.6441 (1.0465)
마이크로필름 자료	2.5763 (.9506)
보고서	2.4746 (.9712)

때 평균 2.9492(std. .8595)로 “그저 그렇다”에 매우 근접한 평가를 하였다.

같은 평가기준으로 관련서적, 학위논문 등 9가지의 세부 자료지원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본 표를 통하여 응답자들은 학술지, 서적 등 전통적인 자료수집방법보다 인터넷, CD-ROM, PC통신 등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이를 통한 자료수집방법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2.2 자료수집 기간과 방법에 관한 평가

응답자 개인의 평균자료수집기간은 최단 3일에서 최장 140일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들의 평균은 약 41일(41.4068일)인데 표준편차가 34.9532일로 개인간의 수집기간차이가 많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자료수집처는 1(거의 사용없음), 5(매우자주)의 등간척도에서 인터넷 등 통신망이 평균 3.59(1.085)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술세미나(3.22), 교내도서관(2.83), 교외도서관(2.53), 연구국제현장(2.5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의 원산지는 미주문헌이 평균 4.10(.9594)으로 가장 인용빈도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내문헌(3.19), 유럽문헌(2.29), 일본문헌(1.85), 기타지역(1.54) 순으로 나타났다.

4.2.3 자료수집의 난이도(難易度)

응답자들이 자료수집시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정보원들을 평가한 항목에서는 마이크로 필름이 5점 척도에서 평균 2.00(1.1890)으로 “어려운 편이다”로 평가되었으며, 가장 쉽게 느끼는 정보원은 인터넷자료(3.24)와 관련서적(3.17)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의 정보원(학위논문, 보고서, 학술지, 전문잡지, 마이크로자료²⁾,

CD-ROM자료, PC통신 자료 등) 모두에 대하여는 3점(그저 그렇다) 이하의 평균응답을 보여 주어, 대체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 소스에의 접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이하다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응답이 정보원 이용에 대해 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2.4. 자료검색방법의 선호도

응답자들이 자료를 검색할 때 선호하는 방법 7가지를 순위별로 기재할 때 그 변수들을 Kendall's W Test로 처리하여 그 선호도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Mean Rank).

- ① 유사논문의 참고문헌(2.32)
- ② 관련학문의 초록지, 색인지(3.08)
- ③ 검색어를 사용하는 온라인 열람목록(3.22)
- ④ Internet의 검색엔진(3.83)
- ⑤ CD-ROM 자료(4.23)
- ⑥ 천리안, 하이텔(5.47)
- ⑦ DIALOG, KINITI-IR 등 online database(5.85)

이 선호도 Test에서 켄달의 일치도 계수(Kendall's Coefficient of Concordance)인 W의 값은 .360 (36%)으로 나타났고, χ^2 검정결과 유의도는 $p=.000$ 으로 통계적 의미가 있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의 검색자료에 대한 선호도가 전체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일치함을 나타내고 있다.

2) 마이크로 필름 자료, 마이크로피쉬((Microfiche) 자료 등의 microform 형태로 만들어진 자료들

4.3 응답자의 특성과 자료수집결과에 대한 행태차이분석

자료정보원의 활용은 응답자의 전공에 따라 수집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논문에서는 대학전체의 전공영역 중에서 사회과학 전공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 차이는 많이 좁혀진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사 전공의 응답자들 중에서는 어떤 자료활용의 변수들이 어떤 응답자들의 자료수집방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자들간의 자료 정보원활용의 다양한 형태를 인구통계변수와 측정 변수들 중에서 표준편차가 큰 변수 3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각각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4.3.1 응답자의 직위(POSITION)

응답자의 직위는 (1) 전임강사, (2) 조교수, (3) 부교수, (4) 정교수로 나누었는데, 이 변수에 대한 통계상 첨도(skewness)의 값은 $-2.70(\text{std. error } .311)$ 으로 앞의 응답자의 직위구성에서

와 같이 정규분포보다 매우 두터운 상태이므로 전임강사와 조교수(Junior) 그리고 부교수와 정교수(Senior)로 나누어 자료활용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자의 Position에 따라 자료수집 방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4>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있는 변수 4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표 4>를 정리하면 응답자의 직위가 높은 집단(정교수 및 부교수: Senior)이 자료수집에 있어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8.1316일로 Junior집단보다 더 길게 나타나고, 다른 하나의 특징은 동 집단의 일본논문의 참고빈도가 평균 2.0789로 빈도 수가 높지는 않지만 Junior 집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통계적 변수에서는 두 집단의 국내 연구기간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국외에서의 연구기간은 Junior 집단이 평균 30개월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직위(Junior, Senior 집단간)의 차이가 4가지 변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유의수준
자료수집 소요기간	Junior ***	20	28.6000	16.8692	54.020	-2.582	.013 *
	Senior ***	38	48.1316	40.4215			
일본논문 인용빈도	Junior	20	1.4500	.8256	54.756	-2.183	.033 *
	Senior	38	2.0789	1.3633			
국내연구 기간	Junior	20	45.9000	51.9168	55.703	-3.580	.010 *
	Senior	38	113.8684	92.6114			
국외연구 기간	Junior	20	74.6000	36.4539	38.513	3.001	.005 *
	Senior	38	44.4474	36.1997			

* sig. < .05, ** < .01

*** Junior 집단은 '전임강사 및 조교수', Senior 집단은 '부교수 및 정교수' 집단을 지칭함.

4.3.2 자료수집 소요시간(SDAYS)

응답자들이 한 논문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의 평균은 41.4일이고, 이에 대한 표준편차가 34.95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을 28일 미만(FAST)과 이상(SLOW) 두 집단으로 나누어 자료수집의 행태분석을 하였다.

응답자들의 자료수집방법 측정변수들 중 여기에서는 '미주논문' 한 변수만이 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자료를 빨리 찾는 집단인 FAST의 경우 국가별 인용빈도에서 미주문헌을 참조하는 평균이 3.8710(std. 1.1472) 이고 SLOW 집단은 4.4000(std. .5774)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미주문헌의 참고 비중은 매우 높으면서도 통계적으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유의도: 0.030).

4.3.3 자료의 시간경과정도(TIMELAG)

응답자들이 구하는 자료의 신선도는 평균 24.22개월이고, 이에 대한 표준편차(23.644)도 매우 높으므로 최근 자료를 구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하는 집단간에는 자료수

집 행태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자료의 시간경과정도가 4개월 미만(NEW)인 집단과 4개월 이상(OLD)인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5〉를 정리하면 최신자료를 수집하는 집단인 NEW의 특성은 자료지원상황에서 학위논문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2083(std. .6580)으로 나타나 약간 불만을 표시한 OLD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고, 보고서에서도 OLD 집단보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자료수집을 위해 학술 세미나에 참가하는 빈도수가 '자주'에 가까운 3.6250(std. .8754)으로 '보통'을 나타내는 OLD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 변수의 특징으로서는 직위가 높고 따라서 재직기간이 긴 집단이 최신자료를 더 많이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3.4 연구모형도출

이상의 세 변수 즉, 응답자의 직위(POSITION), 자료수집소요기간(SDAYS), 그리고 자료의 시간경과정도(TIMELAG)에서 각 집단간 편차가 큰 변수들을 상대로 어떠한 독립변수들이 이

〈표 5〉 이용자료의 신선도(New & Old) 차이가 5개의 변인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유의수준
학위논문	New	24	3.2083	.6580	52.852	3.333	.002
	Old	31	2.5484	.8090			
보고서	New	24	2.7083	.9546	49.641	1.858	.069
	Old	31	2.2258	.9560			
학술세미나	New	24	3.6250	.8754	49.593	2.762	.008
	Old	31	2.9677	.8750			
직위	New Old	24 31	crosstab	crosstab			
재직기간	New	24	159.7083	82.6825	48.675	2.832	.007
	Old	31	97.0323	79.6850			

〈표 6〉 자료의 시간경과정도(TIMELAG)에서 나타난 4가지의 연구모형

TIMELAG 독립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상수	11.3259 ***	10.8820 ***	9.6494 ***	12.7903 ***
학위논문 만족도	-1.3527 *	-1.4531 *	-1.3956 *	-1.5188 *
보고서 만족도	-.2363	—	-.1549	-.2667
세미나 참가빈도	-1.1621 *	-1.1288 *	-1.1057 *	-1.2752 *
응답자 직위	-.6570	-.6353	—	-1.4908(두집단)
대학재직기간	-.0049	-.0053	-.0095 *	-.0046
χ^2	25.556	25.270	23.807	25.831
df	5	4	4	5
sig.	.0001	.0000	.0001	.0001
Hit-Ratio	76.36%	76.36%	76.36%	80%
Cases	63	63	63	63
Model cases	55	55	55	55

* sig. < .05, ** < .01, *** < .005

세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간 모형을 도출하여 주는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POSITION 과 SDAYS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모형이 나타나지 않고, TIMELAG 에서만 나타났다.

〈표 6〉에서는, 최근자료를 구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응률이 높은 편이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있는 네 모형을 제시하였다. 네 모형에서의 공통적인 사항은 학위논문에 대한 만족도와 세미나 참가빈도가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최신문헌을 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4 사회과학 학술정보원

앞에서도 이미 논의된 바 있지만 사회과학자

들은 변화하는 연구환경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하고 대체로 기존의 자료(서적, 논문, 학술지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으며, 관련자료를 구할 때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원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익힐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사회과학자들이 연구활동에 활용하는 학술정보들은 거의 모든 형태의 정보자원을 포괄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사회과학자들이 전통적인 인쇄본 형태의 자료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가 하면 인터넷이나 CD-ROM을 통한 정보탐색이나 하이텔, 천리안 등의 소비자네트워크(PC통신)를 통한 정보탐색도 보편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사회과학자들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술정보원의 구축은 모든 가능한 정보원을 모두 열거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과학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자료 또는 정보원의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정보원의 특성과 범위를 간략히 기술함으로써 정보의 유형별로 탐색하는 기법을 익히게 하고, 다음으로 원문(full-text)을 입수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학술연구적인 측면보다는 참고정보원을 소개하는 성격을 강하게 띠고, 본 학회지 기고논문에는 6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다 수록하기에는 학회지 편집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계에서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는 학회구성원의 상당수가 이미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되므로, 앞서 연구된 계량적 연구의 결과만을 자세히 서술하였고, 사회과학 학술정보원의 상세 내용은 이를 참고 자료로서 대체하고자 한다. 사회과학분야의 참고정보원에 대한 상세 내용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은 박준식 등 (2000)을 참조하기 바란다.

본 보고서에는 사회과학자들의 학술정보원 이용행태분석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효과적인 학술정보원의 이용방법이 종합적인 학술정보원에 부가하여 사회과학분야 색인초록서비스, 사회과학 정보의 원문입수방법 등의 순서로 5. 사회과학 학술정보원의 소개' 부분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http://lis.keimyung.ac.kr/source.htm>).

5 결 론

5.1 연구내용의 요약

이상에서 본 연구자들은 사회과학자들의 학술정보원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학술정보원의 이용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재 연구대상대학에 재직 중인 사회과학관련 15개 전공의 104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인적사항 및 연구환경에 대한 만족도, 특성 및 연구자료의 이용행태 등을 설문조사하였다. 결과로서 59개의 응답을 수집, 통계처리하여 분석한 후, 응답자의 주 연구분야, 직위, 대학재직기간, 연구기간에 따른 자료수집기간과 방법,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검색방법의 선호도, 자료수집 소요기간, 최신자료의 이용률 등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도출하려고 시도한 바, 자세한 내용은 '5.2. 계량연구를 통한 발견사항'에서 기술하였다.

이후 연구와 교육활동에 응용될 수 있는 참고정보원을 사회과학 및 인접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정보의 탐색에 도움이 되는 종합학술정보원과 사회과학의 각 영역별 주요 색인·초록 서비스로서 소개하고 탐색하는 기법에 대해 논의하는 두 가지로 유형으로 나누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단행본 정보나 잡지기사 또는 논문을 탐색하는 보조자료로서 종합적인 색인·초록서비스, 인용색인, 학위논문, 목차서비스, 신문기사색인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을 모두 9개의 영역 즉, 사회과학 공통, 사회학, 정치·행정, 법률, 매스컴, 심리학, 문헌정보학, 경제·경영, 교육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중요한 교육 및 학술정보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탐색된 정보의 원문 즉, 전문을 입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전문서비스의 경우는 전통적인 문헌배달서비스와 전자적 기법에 의해 디지털로 제공되는 전자적 전문서비스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들 전문서비스는 그 방법뿐만 아니라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체 및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전문의 입수가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자들의 연구환경과 각 자료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논문자료의 형태 및 입수경로, 기간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이의 개선방안 및 각 분야별로 유용한 참고정보원을 제시하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었다. 전반부의 계량연구를 통한 발견사항을 요약하고, 후반부의 효과적 사회과학 학술정보원 개발과 교육연구활용 부분을 통한 기대효과와 사회과학도들에 대한 제언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5.2 계량연구를 통한 발견사항

앞서의 서론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과학자들은 비록 색인, 초록서비스와 같은 참고정보원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원문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 최근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 DB, CD-ROM DB, 인터넷 상의 자료 등을 통하여 보다 최신의 중요자료를 입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반적 이용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종래의 인쇄매체 중심의 자료이용에만 의존하면서, 신속히 개발, 변화되는 참고정보원의 제공과 이의입수에 적응하지 못하여 전자형태 자료의 이용을 등한시한다면, 연구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특히 다학문적인 성격을 띠는 사회과학은 특히 여타의 학문분야의 자료집근에 뒤처져 자신만의 전공영역에서 정저지와(井底之蛙)의 신세를 벗어나기가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료제공자의 관점에서든 사서들이 종래의 수동적인 참고봉사에만 의존한다면 올바른 자료봉사가 이루어

질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수행되어진 바, 먼저 설문조사의 계량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문응답자들은 전통적인 자료수집방법보다는 인터넷, CD-ROM, PC통신 등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수집방법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2) 응답자 개인의 평균 자료수집기간은 41일 정도이고, 개인간의 수집기간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편차: 약35일).

(3) 자료의 원산지는 국내 문헌에 비하여, 국외 자료의 인용빈도가 많은 편이면, 특히 미주 문헌에 대한 인용빈도가 제일 높았다.

(4) 인터넷자료와 관련서적은 자료수집이 용이한 것으로 응답하였지만, 마이크로 필름 자료는 이용이 제일 어려운 자료로 응답되었다. 또한 학위논문, 보고서, 학술지, 전문잡지, 마이크로자료, CD-ROM자료, PC통신 자료 등 거의 대부분의 자료에 대하여 접근 및 이용에 있어 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정교수, 부교수의 집단(SENIOR)이 조교수, 전임강사 집단(JUNIOR)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수집기간은 길고, 일본문헌의 인용빈도는 상대적으로 많으며,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국내연구기간은 현격히 길게 나타났다.

(6) 자료수집에 소요하는 시간이 짧은 집단(SLOW)과 긴 집단(FAST)의 비교에서, 모두 미주문헌의 참고 비중이 높으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SLOW 집단의 인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7) 자료의 시간경과정도는 긴 집단(OLD)이 짧은 집단(NEW)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위논문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보고서에서는

낮았으며, 학술세미나에 참가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빈도가 낮았다. 즉 시간경과정도의 연구모형에서 학위논문에 대한 만족도와 세미나 참가 빈도가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최신의 문헌을 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8) 또한 직위가 높고 재직기간이 긴 집단이 자료의 시간경과정도에서 NEW 집단에 가까운 것으로(최신의 자료에 접근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5.3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제언

앞서의 연구목적과 필요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전공하는 주제분야의 2차정보원 특히, 색인·초록 서비스에 대해 지식이 풍부하지 않다. 아울러 이차정보원의 공급경로인 인쇄본과 전자적 방법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용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보탐색과 수집의 핵심인 원문의 입수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로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과학의 연구와 교육이 효율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분야나 주제에 관한 잡지기사의 리스트와 요약문(초록),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보고서 등에 대한 서지정보, 그리고 최신의 신문기사정보 등을 손쉽게 탐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성공적 연구를 기반을 제공하게 됨을 의미한다.

(2) 사회과학 연구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원의 리스트나 서지적 사항을 얻을 뿐만 아

니라 필요한 원문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수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3) 사회과학 연구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원의 리스트나 초록을 전통적인 인쇄본을 통해 얻는 방법뿐만 아니라 온라인, CD-ROM,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아울러 원문을 입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우편, 팩스 이외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4)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는데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과학의 각 분야별 석·박사학위과정의 연구와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학부과정의 졸업논문이나 교육을 위해서도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사회과학자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대한 표준적인 모델의 설정과 학술정보원의 구축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가능케 함은 물론이고, 정보의 탐색과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게 한다.

(6) 연구와 교육에 관련된 학술정보원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색하고 수집하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중복연구를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정보탐색과 수집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의 분명한 해답이 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과학자들은 효과적 연구활동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원하는 정보의 리스트 및 원문의 입수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의 연구에서 제공한 바와 같이

각 분야별 정보원은 전자형태의 자료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 바 이의 효과적 활용이 교육과 연구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미래엔(시간이 흐를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다양성에 비추어 각 분야별로 현재 또는 미래에 나타날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 또한 필수적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과학자들이 원하는 정보의 형

태는 기존의 인쇄본 중심에서 전자적인 형태로 계속 변화될 것이며, 그 양이 가속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접근 통로도 다양화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술정보원의 구축을 2000년 2월 현재의 상황으로 조사 분석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이 생기는 각종 학술정보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은경. 1984. "User study의 추이 및 문제점에 관한 고찰" 『도서관학논집』 11. 19-43

김병주. 1995. "우리나라 사회과학자의 정보이용 경향." 『사회과학연구』. (상명여대) 8: 241-253.

김용성. 1988. "사회과학자들의 정보원에 관한 인용문헌분석" 『도서관』. 43(3): 23-36.

박준식. 1998. 『정보서비스론』.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박준식, 박일중, 신상현. 2000.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학술정보원의 개발과 교육연구활용』.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진흥 특별연구비 과제연구보고서): 60.

사공복희. 1983. "이용자 연구에 관한 소고" 『도서관학』. (강남사회복지학교) 1: 111-139.

최은주. 1995. 『사회과학정보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한복희. 1992. "이용자 연구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도서관학』 23: 107-125.

Aby, Stephen H. 1987. *Sociology A Guide to Reference and Information Sources*. En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Daniells, Lorna M. 1993. *Business Information Sources* 3rd ed.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itter, A. George, and Robert Grunin. 1980. *Communication: A Guide to Information Sources*. (Psychology Information Guide series, vol. 3) Detroit: Gale

Herron, Nancy L. 1996. *The Social Sciences, A Cross-Disciplinary Guide to Selected Sources*. 2nd ed. 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 Inc.

Huston, Mary M. 1989. "May I introduce you: Teaching culturally diverse end-users through everyday information

- seeking experiences" *Reference Services Review*. 17(1): 7-11.
- Jacobstein, J. Myron, Roy M. Mersky, and Donald J. Dunn. 1994. *Fundamentals of Legal Research*. 6th ed. Westbury, NY: Foundation Press.
- Li, Tze-chung. 1990. *Social Science Reference Sources*. 2nd ed.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 Park, Il-Jong. 1991. "Communication Pattern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small business managers: Focused on immigrants from Oriental countries" (Unpublished) A class paper in Fall.
- Price, Derek J. de Solla. 1963. *Little Science, Big Science*.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Prytherch, Raymond John. 1987. *Sources of Information in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2nd ed. Aldershot, England. Brookfield, Vt. Gower.
- Purcess, Gary R. and Gail A. Schlachter. 1984. *Reference Sourc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 Guide to the Literature*. Santa Barbara, CA: ABC-Clio.
- Salasin, J. and T. Cedar. 1985. "Information-seeking behavior in applied research/Service delivery setting" *JASIS*. 36(2): 94-102.
- Simpson, Antony E. 1993. *Information-Finding and the Research Process A Guide to Sources and Methods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Policy Sciences*.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Sternberg, Robert J. 1993. *The Psychologist's Companion: A Guide to Scientific Writing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3rd ed.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 Margaret T. & Ronald R. Powell. 1990. 4th ed. Metuchen, N. J.: The Scarecrow Press.
- York, Henry E. 1990. *Political Science: A Guide to Reference and Information Sources*. En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부록 (설문지) - 원본은 전체 5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학술정보원의 개발과

교육연구활용에 관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본 설문지는 사회과학 연구문헌에 대한 정보개발과 교육연구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연구자료를 구하시는 방법과 견해를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한 문항 한 문항이 일반적인 연구자료접근 실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므로 가능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응답하시는 답변에는 옳고 그르거나, 좋고 나쁜 것이 없으니 편한 마음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또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9월 29일

박준식, 박일중, 신상현 올림
문의전화 580-5435, 5584, 5595

조사

■ 현재의 연구환경에 대한 문항입니다. 느끼신 대로 답해 주십시오.

1. 현재의 교내외(校內外) 연구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 ① 아주 불만 ② 불만족스러운 편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하는 편 ⑤ 아주 만족

구 분	아주 불만	불만	그저 그렇다	만족	아주 만족
1) 관련서적	①	②	③	④	⑤
2) 학위논문	①	②	③	④	⑤
3) 보고서	①	②	③	④	⑤
4) 학술지	①	②	③	④	⑤
5) 전문잡지	①	②	③	④	⑤
6) 마이크로 필름자료	①	②	③	④	⑤
7) CD-ROM 자료	①	②	③	④	⑤
8) 인터넷 자료	①	②	③	④	⑤
9) 천리안, 하이텔 등을 통한 자료	①	②	③	④	⑤

2.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여쭙어 보겠습니다. 다음의 각 자료지원상황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다음은 자료수집에 관한 설문입니다.

3. 교수님께서 하나의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일수나 몇 주로 선택하십시오.

【 】일 혹은 【 】주

구 분	거의 사용않음	가끔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교내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교외(校外) 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3) 학술세미나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 등 통신망	①	②	③	④	⑤
5) 연구 주제현장 (예: 프로젝트)	①	②	③	④	⑤

구 분	거의 없다	적은 편이다	보통 이다	많은 편이다	아주 많다
1) 국내문헌	①	②	③	④	⑤
2) 미주논문	①	②	③	④	⑤
3) 일본논문	①	②	③	④	⑤
4) 유럽논문	①	②	③	④	⑤
5) 기타지역논문	①	②	③	④	⑤

4. 논문자료 수집을 위해 주로 사용하시는 곳을 빈도에 따라 중요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5. 교수님께서 주로 인용하시는 자료의 출처를 국가별 빈도에 따라 중요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6. 연구하시는 주제에 대한 자료를 찾으실 때 사용되는 아래의 방법 중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부터 1~7의 숫자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거의 사용치 않는 방법은 공란으로 두셔도 좋습니다.)

- (1) 유사논문에서 인용된 참고문헌들을 활용한다. ()
- (2) 관련학문의 초록지, 색인지 등을 활용한다. ()
- (3) 주제검색어(Key-word)를 사용하여 온라인 열람목록에서 찾는다. ()
- (4) CD-ROM자료를 활용한다. ()
- (5) Internet상의 검색엔진을 활용한다. ()

- (6) 천리안, 하이텔 등 PC통신자료를 활용한다. ()
- (7) DIALOG, KINITI-IR 등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

구 분	아주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그저 그렇다	쉬운 편이다	아주 쉽다
1) 관련서적	①	②	③	④	⑤
2) 학위논문	①	②	③	④	⑤
3) 보고서	①	②	③	④	⑤
4) 학술지	①	②	③	④	⑤
5) 전문잡지	①	②	③	④	⑤
6) 마이크로 필름자료	①	②	③	④	⑤
7) CD-ROM 자료	①	②	③	④	⑤
8) 인터넷 자료	①	②	③	④	⑤
9) 천리안, 하이텔 등을 통한 자료	①	②	③	④	⑤

7. 관련자료를 구하실 때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을 다음의 각 자료에 따라 표시하여 주십시오.

8. 사용하시는 참고자료의 시간경과정도(오래된 정도)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몇 개월 혹은 몇 년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개월 혹은 【 】년

<인적사항 문의 Part>

■ 다음은 교수님에 대한 기초 자료입니다. 빈칸에 기재하거나 'O' 표 하여 주십시오.

1. 교수님의 전공이나 주 연구분야를 학술진흥재단 기준 대분류와 소분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대분류☞【 예: 경제학】 소분류☞【 예: 환경경제】

2. 교수님의 현 직위에 O 표 하여 주십시오.

- ① 전임강사 ② 조교수 ③ 부교수

- ④ 정교수 ⑤ 객원, 겸임교수 ⑥ 명예교수

3. 대학에서(타대학 포함) 재직하신 기간을 아래의 빈칸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년 【 】개월

4. 석사이상 학위과정을 포함한 국내외 연구기간을 각각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내 【 】년 【 】개월

국외 【 】년 【 】개월

5. 소속 : 【 】학부 【 】학 전공

☞ 이 설문지를 동봉한 봉투에 넣어 방문조사원에게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